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878호 현대불교 29
2012년 3월 7일(음 2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여러분의 근본을 필수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초심자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야 마음공부에 입문하려 하는데 저 같은 초심자가 공부할 해 나가는 데 있어 꼭 명심해야 할 게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답)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걸 하는 것이 입력이 된다는 사실, 바로 이 대뇌를 통해서 소뇌와 중뇌를 통해서 체정을 내리면 정수에 바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입력이 돼서 그 입력된 대로 현실로 나온다는 것. 그래서 현실로 나오는 것을, 나쁜 것이 나왔든 좋은 것이 나왔든 나오는 대로 그 컴퓨터에 그냥 다시 입력을 해라. 그냥 거기 주인공에 맡기고 놓는다면 바로 재빨리 입력이 된다. 그러면 앞서 입력이 돼서 구정물이 나오려고 했던 것을 바로 새 물로 다가 입력을 한다면 현실에 새 물이 나올 게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는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가 입력을 하면 앞서 입력된 건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된 게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너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너만이 진행되게 할 수 있고 연구가 잘 되게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집안에 환자가 있을 때는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잖아.' 왜냐? 돌이 아닌 까닭이죠. 뿌리가 돌이 아니요, 불성이 돌이 아닌 애입니다. 불, 생명,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돌이 아니라 말이지요.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것도 부모다 자식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가설이 된 거니까요.

우리는 그냥 어떠한 이름으로든 신을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신이요, 여러분이 다 선자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하게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가 관습에 얽매고 집착에 얽매고 욕심에 얽매고 모두 그렇게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눈이 밝아지지 않고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게 나오든지, 밝지 못한 게 나오든지 밝은 게 나오든지 모든 걸 거기가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입력이 되는 대로 사대로 통신이 돼서 소임을 맡은 자에게 즉, 위장의 소임을 맡은 자, 방광 또는 콩팥, 척수, 척추, 이 대장, 소장 이런 데도 다 통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임 맡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모든 세계죠. 이 몸뚱이도 세계와 같

은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이 정수에서, 대뇌에서 사대로 딱 통신이 된다면 그 소임자들한테 전부 통신이 되는 거예요. 전부 통신이 돼서 그 어디가 모자라고 어디가 넘치고 그러는 거를 다 알게끔 되고 모자라는 건 채우고 너무 넘치는 거는 줄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본은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화가 없고 냉장고가 없다면 아주 편리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나는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다가 컴퓨터가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컴퓨터를 짚어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짚어지고 다녀 봤던들 그걸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원히 우리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이 자동적인,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컴퓨

터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이자 우리의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첫째, 물론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둘째는 자기 분수를 알으면, 나무들이 뿌리 없이는 못 살듯이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야죠. 셋째는 거기에다 다 입력을 하고 놓고 산다면 모든 게 부자 부럽지 않게 영묘하고 자유스럽게 자유권을 얻을 것입니다.

법망에 걸린다는 말이 있는데...

문) 공부하다 보니 법망에 걸린다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법망에 다 걸린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법망이라는 말이 알 듯 알 듯 하면서도 확실

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거꾸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붙어 돌아다니니까 보는 게 울바로 보인다고, 걷는 데도 울바로 걷게 됩니다. 듣는 것도 울바로 듣지 못합니다. 보고 듣고 다니는 것이 울바르지 못한 이상, 모든 하는 것도 울바로 못합니다. 한 발짝도 에누리 없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항상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내 몸에 왜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많지? 아! 이게 법망이로구나. 아, 내가 한생각 하는데 이 법망을 통해서 온통 내 몸뚱이 구석구석 아니 닿는 데가 없이 통신이 되는구나.' 이 뜻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몸으로부터 지금 나가는, 돌고 도는, 내가 아는 것을 모든 생명들이 다 알고 있구나.' 또 이 지구 자체도 전부 법망에 있거든

요. 허공 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물질이 법망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벗어날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한생각을 하고 한 번 굵고 이러한 대로 내 법망을 통해서 전부 나가는 거예요. 발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이 '아, 저 사람은 아예 모르고 나만 아는 거니까.' 하시지만은 벌써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법망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다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말로 잘못됐다고 엘 쓰지 말아라 하는 것이 그겁니다. 바로 내 마음 하나 가지고서 안으로 굴러서 활용을 한다면은 모두가 전체가 알고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발사가, 통신이 되는데 어째서 말로 그렇게 해 가지곤 불(佛)을 이루겠느냐 이 소립니다.

그렇듯이 내 몸의 법망도 있거니와 지구나 또는 이 허공이나 어디에고 법망이 다 있음으로써 어느 물질이고 다 법망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 산도 맥이 있어요. 산맥이 있고 물맥이 있고 사람들도 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포의 모든 힘줄들이 어떡해서 생긴 겁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한생각에 모두가 대뇌로 해서 전부 통신이 됴으로써, 내가 통신이 됴으로써 탄 데도 전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생각 한생각이 전부 우주법계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어찌 인공위성으로서의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그게 첨단이나 이 겁니다. 어떤 게 제일 빠를까요? 한생각을 한다면 벌써 우주 전체의 삼천대천세계의 세 바퀴 반을 돌아오, 찰나에. 그런데 지금 인공위성을 띄운다고 하더라도 아니, 수 달이 걸리고 이러는데도 그 바로 찍어오는 거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게 얼마큼 차이가 있겠습니까. 빛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빠르지는 못할 겁니다. 이러한 광대무변한 법이 인간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법이 다 주어져 있고 무한의 그 진리가 한 사람의 한 마음의 한 점에 있는데, 정말이지 말로는 다 허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하나 이끌고 가지 못한다면, 모든 자기 중생들이 지금 몇억 마리가 있다 이겁니다. 자기 중생이 몇억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구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구 안에

30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익식 지원

신부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

마음 하나가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29면에서 계속

우리가 이 망사를 씌워 놓고선 그 안에서 기르는 쪽이나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망사 속에서 한 발짝도 떼 놓지 못하는 인간들이 중생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범망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범망에 걸리고 인과에 걸리고 윤회에 걸리느냐 말입니다. 안 걸린다 해도 아니 되지만, 그것은 자유스럽기 때문에 안 걸린다 걸린다도 없어요. 두 가지 다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놓을 수가 없습디다.' 하는데 놓을 수가 없기는, 놓고 가면서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먹은 싸 버리고, 하곤 없애고, 이러한 것을 항상 하면서도 그것을 놓을 수가 없디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생각으로 자기가 업을 지어 놓고 담을 싸 놓고 만날 걸리고 돌아가고 이러한 거죠. 자기 생각이 좀더 공했다는 이치를 알아서 지혜를 넓힌다면 그 모든 걸 여유하게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할 텐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천장은 발이 닿고 머리는 땅 밑으로 대어 있으니 어떻게 그 걸 자세히 알 수가 있겠느냐. 똑바로 서라, 똑바로 서라 이러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알려고 엘 쓰지 마시고 안으로 놓는 공부를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죽 꼴똥 풀어요

문) 어떤 사람만 보면 마음이 죽 꼴똥 풀똥 풀는데 그것도 주인공의 나뭇이라고 봐야 되나요?

답) 그 한 방울 한 방울 나오는 게 전부 문수라고 그러죠. 요즘! 이게 주자거든요. 주적이 아니라 주자예요.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액면 그대로 듣지 마세요. 주적이 주자고 바로 이 방울방울 나오는 것이 요즘, 요즘도 고놈이고 요즘도 고놈이고 요즘도 고놈 속에서 나오는 거고, 전부 고놈이거든요. 아, 팔죽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팔죽 방울이. 그러니까 내가 살림살이하는 게 이게 팔죽 꼴똥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생명들이요, 아주 간략하게 쳐서 15억이라고 해도 되고 16억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진 숫자로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의식 하나가 수천도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 하나가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니까요. 내가 여러분이 된다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도 구름을 타고 연애를 걸러 다니거든요. 사람이 보니까 아, 요즘이 또 연애 걸러 가거든요. 그런데 몸뚱이 놓고 그, 진짜가 가는 거죠. 가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구름을 타고 그냥 연애 걸러 가니까, '요놈 또 바라.' 그러고선 구름을 타고 가는 거를 그냥 탁 마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살려 달라고 그냥, 인젠 안 그

럴 테니 살려 달라고 그래서 놔 줬다는 얘기가 있듯이 말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말입니다. 이게 죽 꼴똥 풀똥 풀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인과로 인해서 업이 생기고 그 업이 뭉쳤기 때문에 고통어리니깐요. 거기서 그 방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 방울마다 나오는 대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방울을 바로 그 마음으로서 다스리고 나가야 할 텐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는 나오는 대로 그냥 말도 해 버리고 "이 죽일 놈 살릴 놈, 급살을 맞아라." 뭐 어쩌고, 그리고 미우면 "그거 차에도 치어 죽지 않냐?" 그리고, 성가시게 하면 그런다고요. 아이, 사실이에요. 그런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외려 죄없이 벗어져서 잘되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을 하니 까 '이 동우리는 병행한 동우리구나. 추워서 못

니가 죽네 사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봉만 딱 이탈되지 않게 꽂아 놓고 그대로 잘 돌리면 뭐라도 넣어서 갈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갈아지는 게 어딴습니까. 그 대신 안되는 게 어딴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게 그대로 밭이요, 중용입니다. 좀 인간이라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보람도 가져야만이 인간이 산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안에도 노예가 되지 말고 바깥에도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팔뚝 뚱다 하더라도 팔뚝 팔뚝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쪼개져서 산산조각이 난다 하더라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그러니 '에이, 죽는 것도 너로 인해서, 사는 것도 너.' 이렇다면 팔뚝 팔뚝 게 뭐 있습니까. 거기다가 모두 여러분을 공부 가르치려면 주인공이 외려 만

리가 기복으로 구하지 않고 참된 불자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이 불교라는 것은 진리인 까닭에 어느 한 군데 종교로 이 불교가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지구가 버스라면 그걸 공기주머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공기주머니가 어디로 돌아서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같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됐습니다.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면서 종교 가지고 네 종교가 어떠니, 내 종교가 어떠니 하고 탄압하고 말입니다. 서로 그렇게 해 나가는 마음이라면 어찌 한세상을 똑같이 위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인생뿐만 아니라 생명의 생명을 대고 교묘한 겁니다. 이 기복으로 만다 보려면 전부 헛다리짚는 셈

기와 같이 주는 사이도 없고 받는 사이도 없이 우리는 그 생각을, 한생각을 항상, 즉 말하자면 내가 누구에게 보시했다 이렇다면 보시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 보시한 대가는 벌써 나한테 오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 거저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지 내가 없다면 무슨 상대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나로부터 모든 게 세상도 벌어지고 가정도 있는 거고 자식도 있는 거고, 모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 모습, 내 나무는 내 뿌리 밎어만이나 아주 건강해지는 겁니다. 왜 건강해지느냐. 거기에 관하니까. 믿으니까. 어디가 아파도 내 마음이 더 잘 알죠? 아프다 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거기에 임력이 돼서 벌써 거기서 작용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고고하고 이렇게 선행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모르고 항상 뭘 좀 달라고, 뭘 좀 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올랐습니까? 자기는 속 빼놓고, 자기 운전수는 속 빼놓고 말입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게 두려워요

문) 얼마 전 취업하기 위해 시험을 쳤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디나 두렵기도 하고 조바심이 나고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저는 어떤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이런 시간들이 힘들디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도 대답할 수 있는 지요.

답)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정갈 오직 종교가, 이 스님네들이 있디지 않디지, 이 종교를 믿지 안 믿디지 간에 자기 자신을 믿고 다니는 자신을 진짜로 믿는다면, 당신네들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아이구!' 해 놓구도 이게 불안하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 안에서 벌써 '야! 영원한 친구야,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고 뜻으로 다가 그냥 자기가 마음이 스스로 안정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설 믿고 그냥 믿다가도 말아 버리고 '이게 주인공이라는 게 뭐 말리빠진 거야?' 하고 내던지면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죠.

그것이, 즉 말하자면 전 우주로의 통신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통신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가고 오기도 하고, 또 알기도 하고, 또 어디서 왔는지 알기도 만들고 그러는 그 보배처럼요. 거기서 너무 내가 불안하고 걱정을 하게 되면 '야! 주인공이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이 되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라고 거기서 뜻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이, 예!' 이렇게 저절로 그냥 든든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가소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않아 못해요. 아주 바깥으로 방향하게 되죠.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저절로 든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첫째, 물론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 분수를 알았으면 나무들이 뿌리 없으면 못 살듯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거기에다 다 임력을 하고 놓고 산다면

모든 게 부자 부럽지 않게 영묘하고 자유스럽게 자유권을 얻을 것입니다.

들어가겠다.' 이라고는 거리로 나뭇다가 점점 더 하는 거예요.

기복이 아무리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들어오면, 자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외박을 한다 하더라도 "에, 너 어디 가서 뭐 출지나 않았냐?" 또 더울 때는 "땀지나 않았냐? 뭐라도 좀 먹었냐? 애, 너를 주기 위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음식을 해 놓고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고 주인공에다 맡기고 부드럽게 해 주고, 또 자기가 나갈 때는 종이에다가 그렇게 뽀뽀 한번 해 놓고 "당신을 사랑해" 또 "너를 사랑해." 그리고 냉장고에다 붙여 놓고 나가면, 그거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이해력을 가지고 넓게 쓴다면 그 보급자리가 따듯해서 바로 화복해지고 탄 대로 이탈이 되질 않아요.

땀물에 심봉을 딱 고고선 땀물을 들고고 거기가 물건을 넣으면 잘 갈려 나오지만 심봉을 잘 씻지 않고 하면 그냥 그, 그, 땀물이 이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도 갈리지 않아요. 인간도 그렇게 살면 이탈이 되고 잘 갈리지 않고 그러

사람을 시켜서 쿡쿡 찌르게 만들고 일을 벌여 놓고 그림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아 가지고 바깥으로 운동 야단이 나죠. 그러하지 마시고 '아, 이거 거기서 나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온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아이구, 알았구나.' 그러고선 그냥 없애주세요. 팔죽 속에 팔죽 끓는 것 탁 치면 없어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울이 올라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생활 속에서 오는 대로 거기다가 그냥, 그 주자로 쳐서 거기다 놓으십시오. 그런데만 여러분이 진짜 그 무명을 벗고 또 남도 동시에 무명을 벗게 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사십시오.

기복신앙에 쉽게 매료됩니다

문) 스님께서는 기복신앙에 대해 누구도 경계를 하시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는 기복신앙에 쉽게 매료당하는 것 같습니다. 불교도 근본 가르침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복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

이예요. 이쪽 나무가 이쪽 나무한테 에너지를 좀 보내 달라고 기도를 해 보세요. 이쪽 나무가 이쪽 나무로 에너지를 보내줄 수 있나? 그 나무는 바로 제 뿌리를 밎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밎어야 푸르르게 살 수 있고 꽃도 필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깨달으면 이 허공 가운데 연꽃이 핀다는 얘기가 있죠. 그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전에는 대법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돈 버리고 왜 이 법회를 하나요 이런 스님네들도 있고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하지만 돈이 다가가 아니죠. 나를 믿어 건지는 데 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면 내 몸뚱이도 다 버리고, 그 모습을 다 버리고 가는데 말입니다. 무엇을 잡고 가려고 돈을 아깝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해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겁에 물 한 잔을 남을 뺐다면 반드시 이진 내가 했기 때문에 한 것대로 돌아옵니다. 바로 임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에, 가계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돈 안 주고 물건 그냥 주는 거 못 보셨죠? 또는 돈을 안 주면 물건도 안 내놓죠. 그런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신문염송 19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9권 출간! 홍화선사, 관계선사, 설봉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삼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지관(止觀)은 염불·간화선·위빠사나 등 모든 수행의 핵심 법문!

중앙승가대 교재 채택!

지관수행
수습지관좌선법요(修習止觀坐禪法要) 강의 천태지의 저 | 송천우 역해 신국판 | 쪽백 | 456쪽 | 2011년 11월 25일 발행 18,500원

모든 남·북방 수행법의 이론과 실제 결집인 수행 지침서

'zīsamatha'를 통해 선정을, '관vipassana'를 통해 지혜를 얻는다

<수습지관좌선법요(修習止觀坐禪法要)>는 처음 발심한 사람이 수증(修增)하고 입도(入道)하는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지관법문을 총론적으로 밝힌 책. 천태종을 창종한 천태지의(538-597) 대사의 저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강백(大綱百) 탄허 스님으로부터 교(敎)를, 명예원로의원 성수 스님 문하에서 선(禪)을 뒤은 동천 송천우 교수(중앙승가대가 이끈 과 실재를 결집하여 상세한 해설을 덧붙여 수행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3칸겹집 목조건물: 9500x7000x4500mm / 가격: 평당 150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x180x2470 / 다그라스목재도리 170x170
다그라스목재서까래 100x100 / 목재판재 120x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x300x300 ※ 황토흙 ALC블럭 내화벽돌 판돌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1800x1030x400mm
부가세 별도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플리프로밀렌 자체 기둥 110x90x400 / 도리 80x35 / 중간대 80x35 / 마루판 210x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구산업
www.bangaro.com / bangallo.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